

# 한국사

문 1.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병부를 설치하여 직접 병권을 장악하였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금관가야를 정복하였다.

- ① 자장의 권유로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였다.
- ② 율령을 공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③ 청소년 조직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 ④ 원광에게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를 짓게 하였다.

문 2. 조선시대 북방 정책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최명길 –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 무력항쟁을 주장하였다.
- ② 남이 – 기병을 주축으로 하는 별무반을 조직하여 여진과의 싸움에 대비하였다.
- ③ 김종서 – 세종의 명으로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 ④ 임경업 – 효종을 도와 북벌을 계획하고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문 3.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자학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역사서술에서 강목체는 사라졌다.
- ② ‘진경산수’가 유행하여 우리 산천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많아졌다.
- ③ 서양인이 제작한 세계지도의 전래로 조선인들의 세계관이 확대되었다.
- ④ 판소리나 탤춤이 유행하여 서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였다.

문 4. 삼국시대 금속 제작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철광석 생산이 풍부하고 제작기술이 발달한 가야에서는 철로 만든 불상이 유행하였다.
- ② 백제에서 제작해 왜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들고 금으로 글씨를 상감해 새겨 넣었다.
- ③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철을 단련하고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인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 ④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은 뛰어난 제작기법과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문 5.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경연에서 신하들이 “봉당(朋黨)이 나누어지는 것은 전량(銓郎)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그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도 역시 이를 인정하여 이조 낭관(郎官)과 한림(翰林)들이 자신의 후임을 자천(自薦)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하였다. 그 결과 이조 전량의 인사 권한이 축소되었다.

- ① 『속대전』, 『속오례의』 등을 편찬하였다.
- ②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③ 초계문신체를 시행하여 관리들을 재교육하였다.
- ④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문 6. 밑줄 친 ⑦, ⑧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제는 한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충성스럽고 선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⑦ 황국 신민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일제는 한국의 엄청난 자원을 약탈하고, ⑧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끌고가 강제 수용하고 노예처럼 혹사시켰다.

- ① ⑦ – ‘황국신민서사’를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도 암송하도록 강요하였다.
- ② ⑧ – ‘궁성요배’라 하여 서울의 남산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중요한 장소에 신사를 세우고 예배하도록 하였다.
- ③ ⑧ – 군 인력 보충을 위해 처음에 ‘징병 제도’를 실시했으나 이후에는 ‘지원병 제도’로 바꾸었다.
- ④ ⑧ – ‘만보산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문 7.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은?

- (가) 병인년에 프랑스인이 강화도를 점령하자 양현수가 정족산성에 들어가 그들과 맞서 싸웠다.
- (나) 신미년에 미국인이 강화도를 침범하자 어재연이 광성보에서 그들과 맞서 싸웠다.

- ①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 ② 영남지역의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 ③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 하였다.

문 8. 밑줄 친 ①, ②에 해당하는 석탑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리나라 탑의 양식은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이행되었다. 우리의 산천에는 화강암이 널려 있어 석재를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황토가 많아 전탑이 유행하였는데, ① 신라에서 이를 본떠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탑을 만들기도 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는 백제의 석탑 양식을 받아들여 비례와 균형을 갖춘 새로운 석탑 양식을 만들어 내었다. 불교가 더욱 대중화되고 토착화되었던 고려시대에는 안정감은 부족하나 충수가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석탑이 건립되었다. ②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석탑도 만들어졌다.

①

②

- |             |             |
|-------------|-------------|
| ① 불국사 3층 석탑 | 진전사지 3층 석탑  |
| ② 불국사 3층 석탑 | 감은사지 3층 석탑  |
| ③ 분황사탑      | 경천사 10층 석탑  |
| ④ 분황사탑      | 원각사지 10층 석탑 |

문 9. 다음의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자는 담배를 끊고 부녀자들은 비녀·가락지 등을 팔아서 민족 언론 기관에 다양한 액수의 돈을 보내며 호응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 1,3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상환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 ① 보안회가 주도하였다.
- ②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 ③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 ④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표어를 내걸었다.

문 10. 다음 연표에서 (가) ~ (라) 시기의 정치적 상황으로 옳은 것은?

1776	1800	1834	1849	1863
(가)	(나)	(다)	(라)	
정조 즉위	순조 즉위	현종 즉위	철종 즉위	고종 즉위

- ① (가) –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 평안도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였다.
- ② (나) – 이인좌는 소론·남인 세력을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다.
- ③ (다) –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는 과정에서 ‘황사영 백서사건’이 일어났다.
- ④ (라) –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문 11.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 ② 제2차 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 ③ 토지 개혁을 위해 여전제 실시를 제안하였다.
- ④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겸서관에 등용되었다.

문 12.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서울 올림픽 개최
- ㄴ. 한·일 월드컵대회 개최
- ㄷ. 금융실명제 개시(開始)
- ㄹ.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① ㄱ → ㄹ → ㄴ → ㄷ
- ② ㄴ → ㄷ → ㄹ → ㄱ
- ③ ㄷ → ㄴ → ㄹ → ㄱ
- ④ ㄹ → ㄱ → ㄷ → ㄴ

문 13. 밑줄 친 ‘그’가 활동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돌아와 홍덕왕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널리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으니, 청해진을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였다. … (중략) … 대왕은 그에게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해상을 방비하게 하니, 그 후로는 해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이 없었다.

– 『삼국사기』 –

- ① 산등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방과 신라소가 있었다.
- ②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의 화폐가 주조되었다.
- ③ 시전을 설치하고, 개경·서경 등 대도시에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두었다.
- ④ 『농상집요』를 통해 이양법이 남부지방에 보급될 정도로 논농사가 발전하였다.

문 14. 다음은 광복 이후 발표된 글이다. 밑줄 친 ‘7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좌우 합작은 민주 독립의 단계요, 남북통일의 관건인 점에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곡절을 거듭해 오던 바, 10월 4일 좌우 대표가 회담한 결과 좌측의 5원칙과 우측의 8원칙을 결충하여 7원칙을 결정하였다.

- ①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 발표
- ② 신탁통치 반대와 남북한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
- ③ 토지의 유상 분배 및 중요 산업 사유화
- ④ 유엔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

문 15. 다음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⑦, ⑧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⑦ 제도를 설정하였는데, 삼한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들과 군사들에게 그 관계(官階)가 높고 낮은 지를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한 지, 공로가 크고 작은지를 참작하여 ⑦을 차등 있게 주었다.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職官), 산관(散官) 각 품의 ⑧을(를) 제정 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⑨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고려사』—

⑦ ⑧

- |       |     |
|-------|-----|
| ① 훈전  | 공음전 |
| ② 역분전 | 전시파 |
| ③ 군인전 | 외역전 |
| ④ 내장전 | 둔전  |

문 16. 다음 글을 게재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하의 일이 측량하기 어렵도다. 천만 뜻밖에도 5조약을 어떤 이유로 제출하였는고. 이 조약은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동양 3국이 분열하는 조짐을 나타내는 것인 즉 이토 히로부미의 본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중략)… 오후라 찢어질 듯 한 마음이여! 우리 2,000만 동포들이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이래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졸연히 망하고 멈추지 않았는가? 아프고 아프도다. 동포여 동포여!

- ① 오세창 등 천도교 측에서 발행하여 일진회 등의 매국행위를 비판하였다.
- ② 언론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초빙하였다.
- ③ 남궁억이 창간한 국한문혼용체의 신문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 ④ 윤치호가 주필이 된 후 관민공동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 17.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형이 동북은 좁고 서남은 길어서 1,000리 정도나 된다. 북쪽은 융루·부여, 남쪽은 예맥과 맞닿아 있다. …(중략)… 나라가 작아서 큰 나라 틈바구니에서 펉박받다가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중략)… 땅은 기름지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삼국지』—

- ① 형사취수흔과 서옥제가 행해졌다.
- ②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며,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③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애 등에 수출하였다.
- ④ 12월에 제천행사가 열렸으며,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문 18.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를 <보기>에서 고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과 활동을 재평가하고 분열된 독립운동 전선을 통일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이 모임에서 임시 정부의 조직만 개조하자는 개조파와 완전히 해체한 후 새 정부를 구성하자는 창조파 등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 후 협정을 개정하여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바꾸고,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으로, 이상룡을 국무령으로 추대하였다.

<보기>					
1910년	1919년	1931년	1937년	1945년	
(가)   (나)   (다)   (라)					
	한일 강제병합	3·1 운동	만주 사변	중·일 전쟁	광복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문 19. 다음 자료의 ⑦에 해당하는 것은?

호조에서 아뢰기를, ⑦은(는) 진제(賑濟)와 환상(還上)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국고(國庫)는 군국(軍國)의 수요에 대비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번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활이 오로지 진제와 환상만 바라고 있으니, 이 때문에 ⑦이(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국고로 지급하여 구휼하게 되어 군수(軍需)가 점차로 거의 없어지게 되니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세종실록』—

- ① 흑창
- ② 의창
- ③ 광학보
- ④ 제위보

문 20. 삼국 통일 과정의 역사적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자 웅진에 있던 의자왕이 항복하였다.
- ㄴ.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을 지키던 연개소문의 아들인 남산이 항복하였다.
- ㄷ. 신라는 사비성을 탈환하고 웅진도독부를 대신하여 소부리주를 설치하였다.
- ㄹ. 신라군이 당나라 군대 20만 명을 매소성에서 크게 물리쳤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ㄴ → ㄹ
- ③ ㄴ → ㄱ → ㄹ → ㄷ
- ④ ㄴ → ㄹ → ㄱ → ㄷ